

Diagnosis

T-1 TABLE CLINIC

A	<p>편측 하악과두의 기능적변위를 동반한 안면비대칭의 치험에 목동 이종다운치과 도 경희, 김 석현, 김 경국</p>
<p>본 증례는 안면비대칭을 주소로 내원한 16세 남자환자로서 최대교합시 11mm의 denture midline deviation과 왼쪽으로의 chin point deviation를 나타낸다. 임상 검사상 악관절 의상동의 특기할만한 병력은 없었으며 골격성숙도의 평가를 위한 수완부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growth peak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내었다.</p> <p>안면비대칭의 원인 부위의 파악과 양적 분석을위하여 lateral, P-A cephalo film과 SMA, panex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평면에서의 악골의 형태학적 분석과 이들의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본 환자의 경우 최대교합유도시 교합간섭으로 인한 하악골의 변위가 관찰되어 하악골의 CR 위치에서의 분석도 시행하여 상호비교하였다. 또한 방사선분석 결과는 dental cast의 face-bow mounting과 안면사진의 여러 anthropometric data를 통하여 얻은 수치화된 자료와 종합하였다.</p> <p>분석결과 상악골의 경우 canting은 없었으며 하악골은 골체와 ramus 모두에서 특기할만한 형태학적 이상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측 하악과두는 최대교합시 전내하방으로 traction 되어 좌, 우 articular space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CR 상에서는 우측 하악과두가 후상방으로 이동함에따라 좌, 우 과두의 위치가 유사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최대교합시 보이는 안모의 비대칭양상은 하악골의 기능적 변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교합간섭의 제거를 통한 condyle repositioning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p> <p>Hemimandibular hypertrophy등은 기본적으로 하악의 비대칭적 성장을 일으키는 developmental asymmetry로 규정되는 반면 본 증례에서와 같이 상악궁의 협착이나 최대교합시의 교합간섭정도 CO-CR discrepancy를 동반한 하악의 기능적 변위를 유발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은 하악의 기능적 변위가 초기에는 dental origin이지만 성장기 동안의 이의 지속적 존재는 골격성 비대칭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조기 발견 및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p>	

T-2 TABLE CLINIC

A	<p>Skeletal CI III malocclusion with open bite treated with double jaw surgery 백철호, 우영주, 유지영, 한동식 백철호 치과의원</p>
<p>수술환자의 70%이상 이 미적 개선을 위해 치료를 한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image는 환자가 치료 후 변화된 안모를 볼 수 있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술자가 악 교정 수술을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p> <p>본 증례는 개교교합을 동반한 심한 제 III급 부정교합으로 0.022"×0.028" slot의 Straight Wire Appliance를 이용한 술전 교정과 상악의 Le Fort I 절단술에 의한 level impaction 및 하악의 시상분할상행지 절단술에 의한 set back을 통해 현저한 심미적인 안모의 개선이 있었다. 또한 악교정 수술을 시행 후 변화된 환자의 실제 측모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image를 비교해 봄으로써 컴퓨터를 통한 치료예측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명해보았다.</p>	

Appliance-Treatment

T-3 TABLE CLINIC

A	<p>골격성 개교를 동반한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수술-교정치료 이 연희, 허 재식, 남 동식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p>
<p>한국인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III급 부정교합 중에서 수직적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교정치료 치료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p> <p>수직적 부조화의 원인은 악안면복합체 여러 부위에서의 부조화가 복합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며 하악각의 증가와 하악지 후방경사의 증가, 보상적 스피만곡의 결여, 상악골과 두개저의 회전, 과도한 상악수직고정 및 하악체길이 증가 등이 형태적 특성으로 나타난다.</p> <p>골격성 부조화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악 전치부의 반대교합만을 개선하고자 교정치료를 시행한 경우 compromise treatment는 가능하지만 안모의 심미성과 기능적 교합을 얻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수직적 부조화가 존재하는 경우, 전치부 정출로 인해 심한 안모 손상과 치료후 높은 빈도의 재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상적인 치아 안면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시 악교정수술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정의와 외과 의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p> <p>본 증례는 하악골의 과성장 및 구개평면의 전상방경사로 인해 장안모를 보이는 골격성 개교 를 동반한 III급 부정교합 환자로서 양악수술을 통해 심미적, 기능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p>	